

“알면 알수록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사노피 파스퇴르, ‘박씨그리프테트라주’ TV 광고 캠페인 진행

* 9 월 18 일부터 5 편의 TV 광고 시리즈 송출... 고위험군 포함한 ‘대규모 글로벌 연구’, ‘프랑스 수입완제품’ 차별화 메시지 강조

* 사노피 파스퇴르, 전 세계 독감 백신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120 년 전통의 글로벌 백신기업

대한민국 서울, 2021 년 10 월 5 일 – 사노피 파스퇴르(주) (대표 파스칼 로빈, Pascal Robin,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는 올해 독감 예방접종 시즌을 맞아 자사의 인플루엔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주(VaxigripTetra, 이하 “박씨그리프테트라”)가 9 월 18 일부터 TV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알면알수록 박씨그리프테트라’라는 컨셉으로, ‘독감 백신도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박씨그리프테트라 차별화된 강점을 강조했다. 박씨그리프테트라는 연령 및 위험군별로 제작된 총 5 편의 광고 영상을 통해 생후 6-59 개월 소아·임신부·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한 6 개월 이상 전 연령에서 ‘대규모 글로벌 연구’를 보유한 ‘프랑스 수입완제품’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씨그리프테트라는 120 년 전통의 글로벌 백신기업인 사노피 파스퇴르가 프랑스 내 생산시설에서 원액부터 포장까지 완료해 국내 공급하는 수입 완제품이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전 세계 227 개국 중 150 개국(약 66%) 에 독감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70 년 동안 전 세계에 35 억 도즈 이상을 공급해왔다.

박씨그리프테트라는 생후 6 개월 이상 영유아, 소아 청소년, 임신부, 만성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65 세 이상 성인을 포함하여 총 1 만 3 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6 건의 대규모 글로벌 연구(유럽,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4 개 대륙)를 통해 면역원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우재경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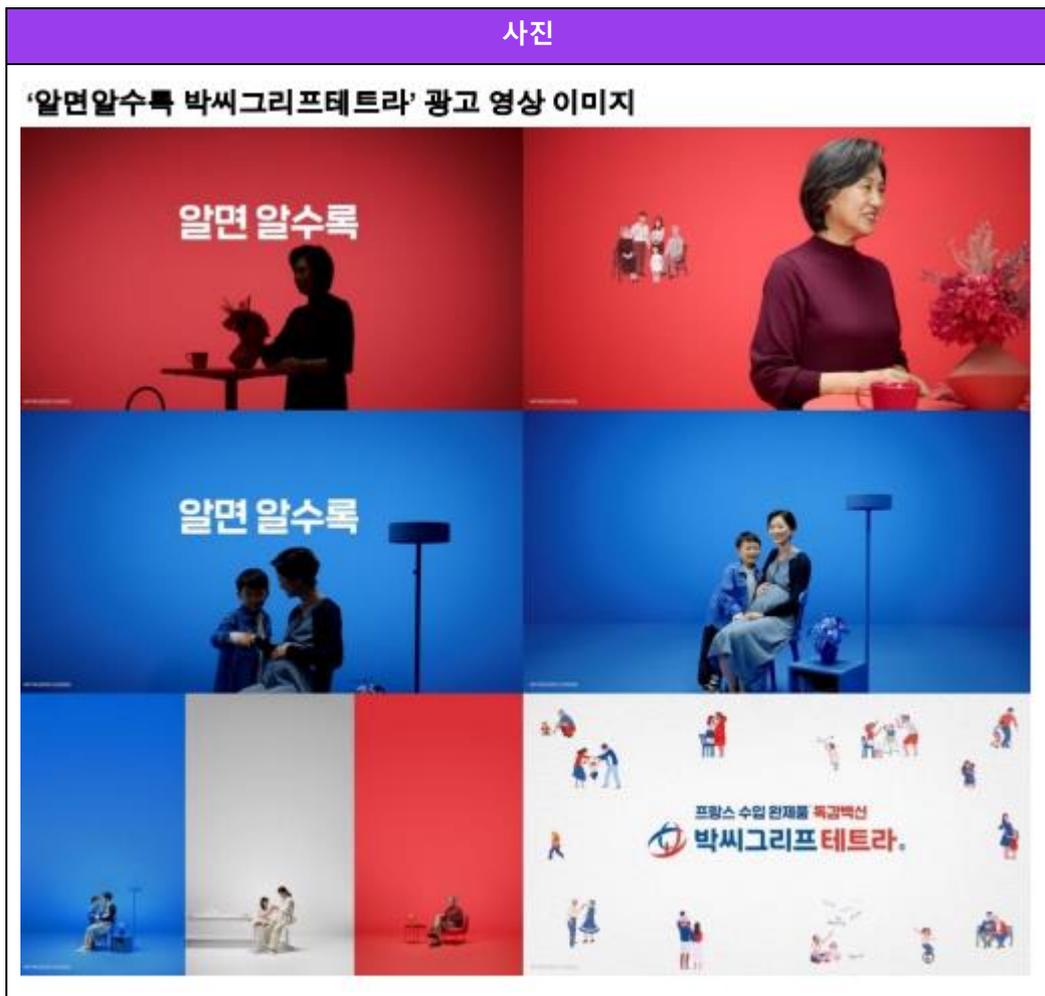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 인플루엔자 사업부 총괄

“방역수칙 준수 및 독감 예방접종 등으로 지난 시즌 인플루엔자 유행이 감소되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백신접종을 통해 독감뿐 아니라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입원·사망 등 유해한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각 연령층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중요성과 차별화된 브랜드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광고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백신 공급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폐렴, 심혈관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호흡기질환,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독감 감염 시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중증합병증, 입원 위험이 증가해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인플루엔자 시즌에는 방역 행동 수칙 준수로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감소했으나, 계속되는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19 는 여전히 복합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낮은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도래하는 시즌에는 더 심각한 유행을 겪었던 사례도 보고된 바 있어,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독감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독감백신 접종이며, 백신을 통해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행주와 백신주가 일치하는 경우 당뇨병, 심장, 폐 질환 등 만성질환자에게 인플루엔자나 폐렴으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을 약 43-56%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질환 합병증 발생의 위험도 36% 감소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심근경색 위험을 19-45%까지 감소시켜,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금연(32-43%), 스타틴(19-30%) 및 항고혈압 요법(17-25%)과 유사한 범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



박씨그리프테트라주(Vaxigrip Tetra)에 대하여

박씨그리프테트라주는 A 형 바이러스 주(strain) 2 종과 B 형 바이러스 주(strain) 2 종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을 예방하는 4 가 인플루엔자 백신이다. 박씨그리프테트라주는 총 6 건의 대규모 글로벌 연구를 통해 생후 6 개월 이상 전 연령에서 면역원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생후 6 개월 이상의 소아, 청소년, 성인에게 1 회 0.5mL 를 접종하고 같은 용량으로 매년 1 회 접종하며,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만 9 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첫 해에 4 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 회 접종한다.

사노피 파스퇴르에 대하여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부문으로 120 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지닌 글로벌 백신기업이다. 사노피 파스퇴르 한국법인인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1989 년 국내 최초로 독감 원액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02 년에는 주사형 소아마비 백신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 외에 독감 백신(완제), A 형 간염 백신, 국내 최초의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국내 최초의 DTaP-IPV 혼합백신, 국내 최초의 DTaP-IPV/Hib 혼합백신, 4 가 단백결합 수막구균 백신, 국내 최초의 베로세포 일본뇌염 생백신 등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